

# 광주·전남 학폭 피해 ‘역대 최대’…100명 당 2.5명 달해

초등학생·교실 내 ‘최다’…언어폭력·따돌림·신체폭행 順  
보호자·교사에 신고…“일 커질 것 같아” 미신고도 23.3%

광주·전남 초중고교생 100명당 역대 가장 많은 2.5명 안팎으로 학교 폭력 피해를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지난 2013년 학교 폭력 전수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초등학생의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광주·전남교육청을 비롯,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를 실시했었다. 이번 조사는 초4~고3 재학생 397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조사 참여율은 82.2%(326만명)였다.  
조사 내용은 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 4~5월 응답 시점까지 학교폭력 목적·피해·가해 경험 등이다.  
광주 지역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지난해보다 0.6%p 늘어난 2.6%, 전남은 0.3%p 증가한 2.5%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2.5%로 0.4%p 늘었는데, 피해 전수조사가 실시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광주지역 학폭 피해 응답률은 2021년 1.0%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5.3%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2%·고등학교 0.6%였다.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38.7%), 집단 따돌림·괴롭힘(16.9%), 신체 폭행(15.1%), 사이버·휴대전화 괴롭힘(7.2%), 강제추행·성폭력(6.2%), 강제 심부름(5.5%), 금품갈취(5.3%), 스토킹(5.2%) 순이다.  
피해 장소는 교실 안이 30%로 가장 많았고, 복도(16.6%)·운동장(7.6%)·화장실(6.5%) 등 절반 이상이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  
전남 학교폭력 피해 유형도 언어폭력(39.2%), 집단따돌림(16.3%), 신체 폭력(14.4%), 사이버

폭력(7.3%) 순으로 많았다.  
피해 장소는 교실(29.5%)이 가장 많았고, 복도·계단(16.9%), 운동장·체육관(10.5%) 순으로 학교 내 발생이 높았다.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2.9%)과 점심시간(19%)에 집중됐으며, 가해자 유형은 같은 반 학생(50.2%)·같은 학년 다른 반(25.8%) 등 같은 학교 내 학생 간 폭력이 대다수였다. 피해 사실 신고는 보호자(34.2%)와 교사(29.2%)에게 주로 이뤄졌으며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23.2%)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모두 폭력 학생의 31%가량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학생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집단적 폭력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고 디지털 공간을 통한 사이버 폭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시도교육청은 파악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갈등의 교육적 해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특히 경미한 학교 폭력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전 관계 회복을 위한 조정·상담을 진행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정책을 꼼꼼하게 추진하면서 피해 학생의 회복과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소방당국이 16일 광양 도이동 광양성황산단 내 알루미늄 폐자재가 보관된 창고에서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화재는 지난 13일 오전 8시 30분께 발생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광양소방 제공>

## 광양시민, 한 달간 맑은 하늘 못본다?

알루미늄 폐자재 공장 화재 나흘째…물 대신 분말진화로 시일 걸려

광양시 중마·광영·금호동 주민들은 무려 한 달 가까이 알루미늄 폐자재 공장 화재로 나오는 시커먼 연기를 참고 살아야할 처지에 놓였다.  
맑은 가을 하늘은 커녕, 알루미늄이 타면서 내뿜는 검은색 연기를 보며 지내야 할 상황이다. 연기에 장기간 노출되는데도 어떤 물질이 얼마나 포함됐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알 수 없어 불안감을 커지고 있다.  
16일 광양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발생한 광양 성황산단 내 알루미늄 폐자재 공장(연면적 2600㎡) 화재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주민들 불편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공장 안에 쌓여있는 알루미늄 분말이 물과 접촉하면 수소가 발생하면서 폭발적 연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물이나 가스 계열의 소화약제가 아닌, 소방대원들이 팽창질식 등을 가져와 알루미늄 분말을 덮는 형태로 진화 작업을 하다보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창고 안에 750kg의 알루미늄 찌꺼기가 담긴 포대만 4000여개(3000t)가 쌓여 있는데 1000개 가까이가 타고 있다”고 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현재 진화하는 속도로 보면 최대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합병 알루미늄 공장에서 지난 7월 발생한 화재는 5시간 만에 꺼졌지만 2년 전에는 18일 동안 진화작업이 진행됐다.  
시커먼 연기가 계속 나오는데 대기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연기 속 중금속 포함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서 주민들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광양시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전문기관 성분분석결과, 유해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중금속 포함 여부는 분석중”이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창문닫기, 외출자제, 마스크착용도 권고했다.  
이번 기회에 산단 인근에 쌓여있는 비슷한 알루미늄 찌꺼기 8000개에 대한 처리와 방지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광양항 배후단지 물류창고 내 폐기물 보관 실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고발인이 경찰관에 역대 편의 제공 의혹

부인 회사에 대학교 공사 몰아줘…전남경찰청 내사 착수

전남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과거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고발인으로부터 수억원대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전남경찰청 소속 팀장급 경찰관 A경감을 뇌물수수, 부정정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진정서에는 지난 2017년 A경감이 순천경찰서에서 순천의 한 대학교 교수의 횡령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하던 중, 고발인인 대학 측이 A경감 부인의 인테리어 회사에 여러 차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경감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지난 2017년 2월과 8월 세 차례에 걸쳐 대학 산학정보관 화장실 보수공사(공사금액 9194만원), 정보과학관 여자 화장실 환경개선공사(7770만원), 강의실 텍스 교

체 공사(328만원)를 계약하는 등 총 1억 7000여 만원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것이 진정인 주장이다.  
A경감은 당시 대학 측이 자교 소속 B 교수를 횡령·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B 교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정인 측은 “A경감이 대학 측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B 교수 사건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경찰 조사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된 데 따라 사건 자료, 대학교 공사 수주 현황 등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며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화순탄광 협력사 근로자에 차액 임금 지급하라”

광주지법, 근로자·퇴직자 19명 석탄공사 상대 소송 승소 판결

118년만에 문을 닫은 화순광업소(화순탄광) 협력업체 직원들이 원청 근로자와의 차액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재차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한울 부장판사는 화순탄광 협력업체 근로자·퇴직자 19명이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근로자 19명에게 원청 근로자와 임금 차액 총 2억 5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대한석탄공사에 주문했다.  
원고들은 협력업체들에 고용돼 화순탄광에서 근로를 제공할 당시 공사 측의 지시·감독 아래 종속적

인 관계에서 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나, 협력업체로부터 공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을 지급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실상 공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나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상대도 공사로 볼 수 있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23년에도 화순탄광 협력업체 직원 13명이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인정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총 12명이 8억 9300여만원의 임금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